

靈樞·師傅에 對한 研究

李炅根·魯鎮宇·陸相元*1)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A study on the Sa Jeon(師傅) of the Young Chu(靈樞)

<Abstract>

Sa Jeon(師傅) of the Young Chu(靈樞), one of the classical book of oriental medicine, derived from its contents. It means that Master transfers something he knows by mind and body to his disciple.

It can be classified by contents as two chapters and five paragraphs. Main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The first chapter stated that first of all doctors have to know yin-yang · pulse · qi and then they have to synthesize them rationally to diagnose precisely, make patients feel comfortable according to patients' favor and hate.

The second chapter stated that we can know viscera' s (including the five solid organs, six hollow organs and extraordinary fu-organs) condition through observation of the body, articulation and prominence of large skeletal muscles. Especially, contents of the second chapt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 in diagnosis of looking.

This part is worth to studying thoroughly because it presented method that we can diagnose precisely without asking patients' disease.

Key Words : diagnosis, accommodation with yin-yang · pulse · qi, favor and hate

1. 緒 論

「師傅」은 『靈樞』 卷六 第二十九에, 『太素』 에는 卷二 攝生之二 「順養」에, 『甲乙經』 에는 卷一 「五藏六府陰陽表裏」 第三·卷六 「逆順病本末方宜形之大論」 第二에, 『類經』 에는 卷十二 「爲治之道順而已矣」· 卷四 「身形候藏府」에 나뉘어 編述되어 있다.

本篇은 先師께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경험을 전수 받아 터득하여 후세 사람들이 診斷과 治療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師傅'이라 篇名

하였다¹⁾.

本篇을 대략 二章으로 나눌 수 있는데, 第一章에서 의사는 陰陽·脈·氣의 逆順에 順和하는 이치를 깨달아 환자로 하여금 그 뜻에 순응하게 해야 하며, 환자의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 편안하게 여기는 것과 治療時에 적당한 것을 살펴 정확한 診斷과 합리적인 治

1) 陳璧疏 外1,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p.260.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p.354.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一中社, 서울, 1992, p.254

療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환자의 病情과 서로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第二章을 살펴보면 望診上에 있어 밖으로 드러난 身形, 關節, 肌肉의 관찰을 통해 臟腑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에 대해 論述하였다.

이상과 같이 환자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금지시키면 그 뜻에 거슬리게 되고 의사가 그 뜻에 따르면 病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 합심하여 病情에 거슬리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하여 病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해야 하는 治療法과 身形肢節을 통해 五臟과 六腑의 吉凶·好惡을 알 수 있는 診斷法에 대해 언급하여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古文으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版本마다 글자가 달라서 여러 版本을 검토하여 各家의 註釋을 比較하여 原文에 알맞은 精確한 註釋을 가려내어 이를 바탕으로 國譯함으로써 본래의 趣旨를 밝혀내고자 이에 본 論文에 着手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方法

본 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內容別로 二章五節로 나누고, 原文과 註釋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直譯·考察·意譯·結論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의 底本은 聚珍倣宋版印本 『黃帝內經靈樞』로 하였다.

나. 任應秋의 『黃帝內經章句索引』, 張介賓의 『類經』, 河北醫學院의 『靈樞經校釋』을 參考하여 그 內容을 章과 節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現代化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調査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恰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一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異見의 對象이 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原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부연하여 解釋하였다.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00'等이며, 脚註는 '1), 2), 3), 4), ……'의 一連番號로 表記하였다.

2. 資料

<表一> 校勘 書名 및 略稱

番號	書名	略稱
1	黃帝內經太素	太素
2	針灸甲乙經	甲乙
3	備急千金要方	千金
4	類經	類經
5	醫學綱目	綱目
6	張馬合編黃帝內經素問靈樞	合編
7	靈樞懸解	懸解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番號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 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番號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4	樓英	明	醫學綱目	樓
5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6	黃元御	1756	靈樞懸解	黃
7	丹波元簡	1808	靈樞識	丹波
8	陳璧疏·鄭卓人	1962	靈樞經白話解	白話
9	廓靄春	1981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廓
10	河北醫學院	1982	靈樞經校釋	校釋
11	李今庸	1988	新編黃帝內經綱目	李

III. 本論

第一章 順治

第一節 貴順之道

【原文】

黃帝 曰余聞컨대 先師有所心藏이나 弗著于方(1)이라하니 余願聞而藏之하고 則(2)而行之하야 上以治民하고 下以治身하야 使百姓無病하고 上下和親(3)하며 德澤(4)下流하야 子孫無憂하고 傳于後世하야 無有終時하노니 可得聞乎잇가 岐伯이 曰遠乎哉라 問也시여 夫治民與自治(1)와 治彼與治此와 治小與治大와 治國與治家에 未有逆而能治之也(2)니 夫惟順而已矣라 順者는 非獨陰陽脈論이요 氣之逆順也니 百姓人民이 皆欲順其志也 니이다

【校勘】

- 1) 自治: 『太素』 卷二 「順養」에는 '治自'로 되어 있다.
- 2) 治之也: 『太素』·『甲乙』 卷六 第二에는

모두 '治者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方: 板也, 서판 방.
- (2) 則: 倣也·法也, 본받을 척.
- (3) 和親(화친): 서로 의종게 지냄.
- (4) 德澤(덕택): 恩德이 다른 사람에게 미침.

【較註】

[1] 上以治民 下以治身

楊은 “上以治民下以治身은 다른 이를 앞세우고 자기를 뒤로함이니 큰 聖人의 뜻이다.”¹⁾고 하였다.

[2] 使百姓無病 上下和親 德澤下流

楊은 “百姓無病上下和親德澤下流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다.”²⁾고 하였다.

[3] 子孫無憂

楊은 “子孫無憂는 집안을 다스린다는 뜻이다.”³⁾고 하였다.

[4] 傳于後世 無有終時 可得聞乎

楊은 “傳于後世無有終時可得聞乎는 더욱 멀리 말한 것이다.”⁴⁾고 하였다.

[5] 遠乎哉問也 夫治民與自治 治彼與治此 治小與治大 治國與治家 未有逆而能治之也 夫惟順而已矣

楊은 “人己·彼此·大小·國家의 여덟 가지는 지킴에 온전함을 取하고 따름에 아름다움을 取하여 모름지기 道德과 陰陽과 物理에 順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순종하는 者는 吉하고 거역하는 者는 凶하니, 이것이 곧 天道다.”⁵⁾고

- 1) ●楊: 上以治民下以治身은 先人後己니 大聖之情也라
- 2) ●楊: 使百姓無病上下和親德澤下流는 理國之意라
- 3) ●楊: 子孫無憂는 理家之意라
- 4) ●楊: 傳于後世無有終時可得聞乎는 言其益遠이라
- 5) ●楊: 人之與己彼此大小國家八者는 守之取全하고 循之取美하야 須順道德陰陽物理라 故로

하였고, 張은 “師傳은 먼저 안 이가 뒤에 알 이를 깨우치고 먼저 깨우친 이가 뒤에 깨달을 이를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니, 夫子께서 이른바 ‘德을 밝히며 百姓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요, 위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아래로는 百姓을 다스리는 것과 大를 다스리며 小를 다스리는 것과 國家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天下를 꾸게 하는 도리다.6)”고 하였다.

[6] 順者 非獨陰陽脈論 氣之逆順也 百姓人民 皆欲順其志也

楊은 “陰陽의 道와 十二經脈과 營衛의 氣에 逆順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성의 뜻도 다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이럼으로써 順함에 吉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人은 常心을 두지 않고 百姓으로써 마음을 삼는다.’고 말한 것이다. 志는 願하는 것이다.7)”고 하였고, 景岳은 “順의 쓰임은 醫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니, 말이 順하지 아니하면 말이 行해지지 못하고 뜻이 不順하면 功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반드시 順히 하지 못할 것이 있으나 또한 順히 함으로 인하여 서로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 아! 順과 不順의 사이에서 자유롭게 變通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히 道를 함께 論할 수 없다.8)”고 하였고, 張은 “順은 조화롭게 하

는 것이다. 氣의 逆順은 陰陽寒暑가 往來하는 것이다. 志는 마음이 가는 것이요, 교만하고 방자하며 하고 싶은 대로하는 것과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함은 뜻이 하고자 하는 대로 드러난 바니, 이른바 그 몸을 다스리고자 하는 者는 반드시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上醫가 나라를 다스리는 道이다.9)”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건대 先師께서 마음에 간직한 바가 있으나 方冊에 記錄하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원컨대 들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본받아 실행하여 위로는 백성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몸을 다스려 백성으로 하여금 病들지 않게 하고 위아래가 화친하며 德澤이 아래로 흘러서 子孫에 걱정이 없게 하고 후세에 傳하여 단절되는 때가 있지 않도록 하고자 하니 가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深遠한 질문이십니다. 백성을 다스리거나 스스로 다스리는 것과 저것을 다스리거나 이것을 다스리는 것과 작은 것을 다스리거나 큰 것을 다스리는 것과 나라를 다스리거나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 거슬려서 능히 다스려지는 것은 없으니, 오직 順히 할 따름입니다. 順하게 하는 것은 다만 陰陽脈論과 氣의 逆順뿐만 아니라 백성이 모두 그 뜻에 順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非獨陰陽脈論’에 對하여 『語譯』 등에서 ‘論’字를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楊注와 같이 陰陽과 脈과 氣에 대한 逆順으로 보아야 文意가

順之者는 吉하고 逆之者는 凶하니 斯乃天之道라

- 6) ●張: 師傳者는 先知覺後知하고 先覺覺後覺이니 卽夫子所謂明德新民之意요 上以治國과 下以治民과 治大治小와 治國家는 乃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道라
- 7) ●楊: 非獨陰陽之道와 十二經脈과 營衛之氣에 有逆有順이라 百姓之情도 皆不可逆이니 是以 順之有吉也라 故로 曰聖人은 無常心하고 以百姓으로 爲心也라하니라 志는 願也라
- 8) ●景岳: 順之爲用은 最是醫家肯綮니 言不順則道不行하고 志不順則功不成하니 其有必不可順者나 亦未有不因順以相成也라 嗚呼라 能卷舒於順不順之間者는 非通變之士면 有未足以與道也라

- 9) ●張: 順은 和也라 氣之逆順者는 陰陽寒暑之往來也라 志者는 心之所之也요 驕恣縱欲과 惡死樂生은 意之所發也니 所謂欲治其身者는 必先正心誠意라 此는 上醫醫國之道也라

분명해지므로 '論'字는 錯簡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第二節 便病人法

【原文】

黃帝曰 順之는 奈何오

岐伯이 曰 入國問俗하며 入家問諱하며 上堂問禮¹⁾하며 臨病人²⁾에 問所便¹⁾이다

黃帝曰 便病人은 奈何오

岐伯이 曰 夫中熱消瘴³⁾則便寒하고 寒中之屬則便熱이라 胃中熱則消穀하여 令人懸心善飢하고 臍以上皮熱⁴⁾이요 腸中熱則出黃如糜⁵⁾하고 臍以下皮寒⁶⁾이라 胃中寒則腹脹⁷⁾하고 腸中寒則腸鳴飧泄이요 胃中寒腸中熱則脹而且泄⁸⁾하고 胃中熱腸中寒則疾飢하고 小腹痛脹⁹⁾이 니이다

黃帝曰 胃欲寒飢¹⁰⁾하고 腸欲熱飲하야 兩者相逆²⁾하면 便之는 奈何¹¹⁾오 且夫王公大人과 血食之君은 驕恣從³⁾欲하고 輕人而無能禁之라 禁之則逆其志하고 順之則加其病하니 便之는 奈何며 治之는 何先이니잇가

岐伯이 曰 人之情⁴⁾은 莫不惡⁵⁾死而樂⁶⁾生하니 告之以其敗¹²⁾하고 語之以其善¹³⁾하며 導之¹⁴⁾以其所便하고 開之以其所苦면 雖有無道之人이라도 惡⁷⁾有不聽¹⁵⁾者乎리잇가

【校勘】

- 1) 入國問俗入家問諱上堂問禮: 『甲乙』 卷六 第二에는 '故入國問其俗'으로 되어 있다.
- 2) 臨病人: 『甲乙』에는 '臨病'으로 되어 있다.
- 3) 夫中熱消瘴: 『太素』卷二 '順養'에는 '夫人中熱消瘴'으로 되어 있다.
- 4) 臍以上皮熱: 『綱目』卷二十一에는 '臍以上

皮熱'로 되어 있다.

- 5) 出黃如糜: 『甲乙』에는 '出黃如糜色'으로 되어 있다.
- 6) 臍以下皮寒: 『懸解』에는 '臍以下皮熱'로 되어 있다.
- 7) 胃中寒則腹脹: 『太素』·『甲乙』에는 모두 '胃中寒則腹脹'으로 되어 있다.
- 8) 腸中熱則脹而且泄: 『太素』·『甲乙』에는 모두 '腸中熱則脹且泄'로 되어 있다.
- 9) 小腹痛脹: 『太素』에는 '少腹痛脹'으로 되어 있다.
- 10) 胃欲寒飢: 『太素』·『類經』卷十二 '爲治之道順而已矣'에는 모두 '胃欲寒飢'으로 되어 있다.
- 11) 便之奈何: 『甲乙』에는 '治之奈何'로 되어 있다.
- 12) 告之以其敗: 『太素』에는 '告之以其馭'로 되어 있다.
- 13) 語之以其善: 『太素』에는 '語之以其道'로 되어 있다.
- 14) 導之以其所便: 『太素』에는 '示以其所便'으로 되어 있다.
- 15) 惡有不聽: 『太素』에는 '惡有不聽令'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便: 安也 宜也, 편안할 편.
- 2) 逆: 反對, 반대할 역.
- 3) 從: 隨也, 좃을 종.
- 4) 情: 情實, 진실한사실 정.
- 5) 惡: 忌也, 꺼릴 오.
- 6) 樂: 好也, 좋아할 요.
- 7) 惡: 何也, 어찌 오.

【較註】

[1] 順之奈何入國問俗入家問諱上堂問禮臨病人問所便

楊·景岳·張·丹波·『白話』는 “禮記에 ‘다른 나라에 들어감에 禁하는 바를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風俗을 물어야 한다고 한 것은 각 지역마다 風氣에 다름이 있고 尙상하는 것이 다르니, 聖人이 반드시 그 마땅한 바로 인하여 다스린 것이므로 禁이라 말하지 않고 風俗이라 말한 것이다. 諱는 꺼리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에 좋지 여기고 싫어함의 치우침이 있으며 말과 표정에 혐의를 피해야 함이 있는 것이니, 이를 犯하는 者는 미움을 살 수 있고 미움을 사면 서로 어울리지 못하므로 남의 집에 들어감에 마땅히 꺼리는 것을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禮는 예의범절이니, 사귀고 접대함에 예절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고 머무름에 法도가 있어야 하니, 이를 지키지 못하는 者는 가벼이 여겨지게 되고 경시됨을 받으면 말에 무게가 없으므로 사당에 올라감에 마땅히 禮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便은 서로 마땅하게 하는 것이니, 居處의 宜否와 행동함의 宜否와 陰陽의 宜否와 氣味の 宜否가 있으니, 病者에 臨하여 그 마땅함을 잃으면 다스림을 베풀어 반드시 서로 그르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病者에게 편안해 하는 바를 물어 보아야 함이니, 이것이 다 順함을 취하는 道다.”¹⁰⁾고 하였다.

10) ○楊: 夫爲國爲家爲身之道에 各有其理하니 不循其理而欲正之身者는 未之有也라 所以並須問者는 欲各知其理而順之也라 俗諺禮便은 人之理也요 陰陽四時는 天地之理也니 存生之道는 闕一不可 故로 常問之也라 便은 宜也니 謂問病人寒熱等病하야 量其所宜하야 隨順調之 故로 問所便者也라 ●景岳: 禮에 云入國問禁이라호대 而此에 云問俗者는 以五方風氣有殊하고 尙尙有異하니 聖人이 必因其所宜而爲之治 故로 不曰禁而曰俗也라 諱者는 忌也니 人情에 有好惡之偏하며 詞色에 有嫌疑之避하니 犯之者는 取憎하고 取憎則不相合 故로 入家에 當問諱라 禮者는 儀文也니 交接有體하며 進止有度하니 失之者는 取輕하고 取輕則道不重 故로 上堂에 當問禮라 便者는 相

[2] 便病人奈何夫中熱消瘴則便寒中之屬則便熱

楊·馬·景岳·張·黃·『校釋』은 “이 아래는 모두 病을 다스리는데 便宜한 바를 말한 것이다. 中熱은 속에 熱이 있는 것이요, 消瘴은 속에 熱이 있으면 瘴이 되어 자주 배가 고프며 목마르고 날로 여위어지는 것이다. 熱이 속에 있으면 다스림에 차게 하면 편해지고 寒이 속에 있으면 熱하게 하면 편해지니, 이것이 다 病情에 順한 것이다.”¹¹⁾고 하였다.

[3] 胃中熱則消穀令人懸心善饑臍以上皮熱腸中熱則出黃如糜臍以下皮寒

楊·馬·景岳·黃·廓·『校釋』·李는 “消穀은 穀食이 잘 消化되는 것이다. 懸心은 胃火가

宜也니 有居處之宜否하며 有動靜之宜否하며 有陰陽之宜否하며 有寒熱之宜否하며 有情性之宜否하며 有氣味之宜否하니 臨病人而失其宜면 施治에 必相左矣라 故로 必問病人之所便이니 是皆取順之道也라 ○張: 入國問俗과 入家問諱와 上堂問禮와 臨病人問所便은 卽治國齊家治民之要라 便者는 所以更人之逆也라 ○丹波: 鄭注曲禮에 云 禁은 謂政教라하니 俗은 謂常所行與所惡也라 ○白話: 便은 在此處是指對於病人最爲適當的治療措施라

11) ○楊: 言何方面知其所便也라 中은 腸胃中也라 腸胃中熱하면 多消飲食하니 卽消瘴病也라 瘴은 熱也요 音丹이라 熱中은 宜以寒調하고 寒中은 宜以熱調하니 解其便也라 ○馬: 此는 詳言便病人之法也라 病有中熱消瘴하면 則以寒爲便하고 中寒之屬은 則以熱爲便이라 ●景岳: 此下는 皆言治病之所便也라 中熱者는 中有熱也요 消瘴者는 內熱爲瘴하야 善饑渴而日消瘦也라 凡熱在中則治便於寒하고 寒在中則治便於熱하니 是皆所以順病情也라 ○張: 熱者는 更之寒하고 寒者는 更之熱也라 熱中寒中者는 寒熱之氣가 皆由中而發하고 內而外也라 ○黃: 中熱消瘴則便寒은 得寒而便也요 寒中之屬則便熱은 得熱而便也라 ○校釋: 便은 適宜의意思니 病人之所便은 實指如何使病人更安適과 更減少痛苦의條件與要求라 如下文所談寒中之屬則便熱은 是說受了寒의病人多喜熱이니 此熱은 卽爲病人之所便이라 中熱消瘴은 因熱而致之消瘴病으로 分上中下三消하니 此指中消하야 其表現爲多食易飢라 素問通評虛實論王注에 消는 謂內消요 瘴은 謂伏熱이라하니라

上炎하여 心血이 뜨거워져서 懸한 것이니, 懸은 편안하지 않은 것이다. 胃熱이 穀食을 잘 소화시키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주 배고프게 한다. 배꼽 위는 胃와 小腸이 있는 부분이므로 배꼽 이상의 피부가 熱한 것은 腸도 또한 뜨겁게 된다. 出黃如糜는 胃中の 濕熱한 기운이 小腸으로 傳해졌기 때문이다. 糜는 腐爛이다. 위의 두 節은 다 熱證에 찬 것을 편하게 여기는 類다. 배꼽 이하의 피부가 寒한 것은 腸胃中이 寒하기 때문이다.¹²⁾”고 하였고, 樓는 “胃는 배꼽 위에 자리하므로 胃가 熱하면 배꼽 위가 熱하고, 腸은 배꼽 아래에 위치하므로 腸이 熱하면 배꼽 아래가 熱해진다. 가령 肝膽은 옆구리에 자리하여 肝膽이 熱하면 마땅히 옆구리가 또한 熱하고, 肺는 胸背에 위치하여 肺가 熱하면 마땅히 胸背도 또한 熱하고, 腎은 허리에 자리하여 腎이 熱하면 마땅히 허리도 또한 熱해지니, 가히 類推할 수 있다.¹³⁾”고 하

였고, 張은 “臍以上皮熱은 腸中이 熱한 것이고 臍以下皮寒은 胃中이 寒한 것이니, 寒熱이 外內로 相應한 것이다.¹⁴⁾”고 하였다.

[4] 胃中寒則腹脹腸中寒則腸鳴飧泄

楊·馬·景岳은 “臍은 부풀어 일어나는 것이요, 飧은 穀食이 소화되지 않아 물과 밥을 같이 下泄함을 말한 것이다. 冷氣가 내려가지 않으므로 자주 脹滿해지고, 腸中이 冷하면 氣가 돌아다니므로 腸鳴하게 된다.¹⁵⁾”고 하였다.

[5] 胃中寒腸中熱則脹而且泄胃中熱腸中寒則疾穢小腹疼痛

楊·馬·景岳·黃은 “위 글에서 腸中이 寒한 者는 泄瀉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腸中이 熱한 者도 泄瀉한다고 말했으니, 熱泄과 寒泄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熱泄은 腸垢라 하고 寒泄은 驚漉이라 한다. 胃中이 熱하면 穀食이 잘 소화되므로 빨리 배가 고프고, 腸中이 寒하면 陰氣가 모여 돌아다니지 못하므로 小腹이 끊어질 듯 아프면서 腹脹한다. 위 二節은 다 마땅히 그 寒熱로 인하여 마땅한 바를 따라서 다스린 것이다.¹⁶⁾”고 하였고, 廓·李는 “疾穢는

12) ○楊: 自此以下는 廣言熱中寒中之狀이라 胃中熱以消穀하여 虛以喜飢하고 胃在臍上하니 胃中食氣가 上薰 故로 皮熱也라 陽上陰下니 胃熱腸冷은 自是常理라 今胃中雖熱이나 不可過熱이니 過熱乖常이라 腸中雖冷이나 不可不和니 不和則多熱出黃이라 腸冷하면 多熱不通故로 齊下皮寒也라 ○馬: 如胃中熱則消穀하여 令人懸心而善饑하며 其臍以上之皮當熱하고 若腸中有熱하면 則後出黃色如糜하고 而臍以下之皮則冷也라 ●景岳: 消穀者는 穀食易消也라 懸心者는 胃火上炎하여 心血이 被燥而懸하니 懸은 不寧也라 胃熱이 消穀 故로 令人善饑라 臍以上者는 胃與小腸之分也 故로 臍以上皮熱者는 腸中亦熱也라 出黃如糜者는 以胃中濕熱之氣가 傳於小腸所致也라 糜는 腐爛也라 上二節은 皆熱證便寒之類라 臍以下皮寒者는 以腸胃中寒也라 ○黃: 腸中熱則出黃如糜는 糞黃而膠粘也라 ○廓: 臍以上皮熱은 臍以上皮膚有熱感이라 釋名釋飲食에 糜는 煮米便糜爛也라하니라 ○校釋: 懸은 同懸이니 懸心은 指胃脘空虛의 感覺이라 出黃如糜는 指糞便如黃色的 稀粥이라 ○李: 懸은 通懸이니 懸心은 指胃脘空虛而心慌不安의 證候라 胃熱則穀食易消 故로 飢而心慌이라 臍以上은 爲胃腑所居 故로 胃中熱하면 則臍以上肌膚發熱이라

13) ●樓: 胃居臍上 故로 胃熱則臍以上熱이요 腸居臍下 故로 腸熱則臍以下熱이라 如肝膽居脇하니 肝膽熱則當脇亦熱하고 肺居胸背하니 肺熱則當胸背亦熱하고 腎居腰하니 腎熱則當腰亦熱을 可類推也라
14) ●張: 臍以上皮熱者는 腸中熱이요 臍以下皮寒者는 胃中寒이니 寒熱外內之相應也라
15) ●楊: 臍은 張起也라 飧은 謂食不消하여 下洩이 如水和飯也라 冷氣不下 故로 多脹이라 腸中冷而氣轉 故로 腸鳴也라 ○馬: 如胃中寒則腹當爲脹하고 若腸中寒則腸中鳴而爲飧泄也라 ○景岳: 胃中寒則不能運化而爲腹脹하고 腸中寒則陰氣留滯하여 不能泌別清濁而爲腸鳴飧泄하니 是皆寒證便熱之類라 水穀不化를 曰飧泄이라
16) ○楊: 以上은 腸胃俱熱俱寒이요 此는 乃胃寒腸熱俱下時也라 脹은 是胃寒이요 洩은 是腸熱이니 腸中不可熱이나 令熱則腸中不和 故로 脹且洩也라 此胃熱腸寒俱時엔 胃熱 故로 疾飢하고 腸寒 故로 腹痛也라 ○馬: 如胃中寒而腸中熱하면 則胃中寒者는 當脹하고 而腸中

위의 善饑와 흡사 비슷하나 輕重의 차이가 있다. 善饑는 多饑함을 말하니 때로 배고픈 감이 있는 것이요, 疾饑는 速饑함을 말하니 세속에 서 말하는 火化食이다. 『國語·周語』 韋注에 '疾은 速이다.'고 했다.¹⁷⁾고 하였다.

[6] 胃欲寒飢 腸欲熱飲 兩者相逆 便之奈何 且夫王公大人血食之君驕恣從欲輕人而無能禁之 禁之則逆其志順之則加其病便之奈何治之何先

楊·景岳은 “胃中은 항상 熱하므로 찬 것을 마시고자 하고 腸中은 항상 冷하므로 뜨거운 것을 먹고자 하니, 寒과 熱이 어그러지면 목숨이 손상되게 된다. 만일 하고자 하는 것을 좇으면 病이 더 심해지고 뜻에 거슬리면 화를 받게 되니, 이 두 가지가 같이 兼하여 생기지 아니하므로 먼저 질문한 것이다.¹⁸⁾”고 하였고, 馬는 “이는 腸胃의 寒熱이 같지 아니하여 흡사 편하게 하기 어려우니, 黃帝께서 이런 까닭으로 胃는 찬 것을 마시고자 하고 腸은 뜨거운 것을 마시고자 한다는 것으로 묻은 것이다. 胃가 寒한 때에 마땅히 뜨거운 것을 마시니,

熱者는 必泄也라 如胃中熱而腸中寒하면 則胃中熱者는 當速飢하고 而腸中寒者는 小腹이 必痛且脹也라 ●景岳: 上文은 言腸中寒者泄이요 而此는 言腸中熱者泄이니 所以有熱泄寒泄之不同이라 而熱泄은 謂之腸垢요 寒泄은 謂之驚瀉也라 胃中熱하면 則善消穀 故로 疾飢하고 腸中寒하면 則陰氣聚結不行 故로 小腹이 切痛而脹이라 上二節은 皆當因其寒熱하여 而隨所宜以調之者也라 ○黃: 胃中寒하고 腸中熱하면 則脹而且泄이라 泄은 卽出黃如糜也라

17) ●廓: 此는 與上善饑로 似有輕重之差라 善饑는 謂多饑니 時有餓感이요 疾饑는 謂速饑니 俗云火化食이라 ○李: 疾飢는 謂很快便感到飢餓라

18) ●楊: 胃中常熱 故로 欲滄滄而飲하고 腸中恒冷 故로 欲灼灼而食하니 寒熱乖和則損於性命이라 若從欲則加病하고 逆志則生怒하니 二者不兼 故로 以先爲問也라 ○景岳: 胃中熱者는 欲寒飲하고 腸中寒者는 欲熱飲하니 緩急之治에 當有先後로대 而喜惡之欲을 難於兩從이라 且以貴人은 多任性하니 此順之所以難이요 而治之엔 當有法也라

熱한 것이 어찌 그 본성이 아니겠는가? 腸이 熱한 때에 마땅히 찬 것을 마시니 寒이 어찌 그 본성이 아니겠는가? 두 가지가 서로 거슬러서 편하게 하기가 심히 어렵거늘, 하물며 王公·大人과 血食之君은 하고자 하는 것을 禁하면 그 뜻을 거역하게 되고 하고자 하는 것에 順從하면 病이 더해지니, 진실로 편하게 하기 어렵고 治法을 먼저하기도 어렵다.¹⁹⁾”고 하였고, 廓·『校釋』은 “血食은 매운 채소를 먹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生活이 부유하여 음식에 동물성 食物이 많은 것을 血食이라 한다.²⁰⁾”고 하였다.

[7] 人之情莫不惡死而樂生告之以其敗語之以其善導之以其所便開之以其所苦雖有無道之人惡有不聽者乎

楊·馬·景岳은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마다 같다. 따라서 죽고 사는 情理로 움직이게 한다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품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이 앞의 注에서 말한 順과 不順의 사이에 있으면서도 順하는 것으로 일을 성사시킨다는 뜻이다.²¹⁾”고 하였고, 李는 “告之以其敗語之以

19) ●馬: 此는 腸胃之寒熱이 不同하야 似爲難便하니 帝之所以有胃欲寒飲하고 腸欲熱飲爲問이라 則胃有寒時에 當飲之以熱이나 而熱奈非其性이며 腸有熱時에 當飲之以寒이니 而寒奈非其性이리오 兩者相逆하야 便之甚難이온 況王公大人과 血食之君은 禁其欲則其志逆하고 順其欲則其病加하니 固難于便而治法難于先也라

20) ○廓: 釋名釋形體에 血은 澹也니 出于肉流而澹澹也라하니라 以血出于肉 故로 其義引申可作肉解니 血食은 卽指肉食이라 舊解에 指祭有牲牢하니 于此不合이라 ●校釋: 血食은 指吃葷而言이요 生活優裕하야 飲食中에 多有動物性食物을 卽曰血食이라

21) ●楊: 正可逆志하야 以取其所樂하고 不可順欲而致其所苦 故로 以道語之에 無理不聽也라 ○馬: 殊不知人情惡死而樂生이니 凡致死之事를 告之以其敗하고 開之以其所苦요 凡致生之事를 語之以其善하고 導之以其所便이면 則逆之者라도 未有不樂從者也라 ○景岳: 惡死樂

其善은 곧 그 疾病의 危害와 好轉의 희망을 病人에게 알리는 것이다. 導之以其所便開之以其所苦는 곧 病人에게 適當한 治療방법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뇌와 근심을 풀어주는 것이다. 無道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無道之人은 앞에서 말한 王公·大人과 肉食之君을 가리킨다.²²⁾”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順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나라의 風俗을 물으며,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끼리는 것을 물으며, 祠堂에 올라서는 禮法을 물으며, 病人을 만나서는 편안한 것을 물어 보아야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환자를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속에 熱이 있는 消癰病은 찬 것을 편안히 여기고 속이 寒한 病은 뜨거운 것을 편안히 여깁니다. 胃에 熱이 있으면 消化가 잘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명치에 무엇이 매달린 듯하며 배가 쉽게 고파지고 배꼽 위의 皮膚가 뜨거워지며, 腸에 熱이 있으면 黃色의 죽 같은 大便을 보고 배꼽 아래의 皮膚가 차갑습니다. 胃가 寒하면 腹部가 脹滿해지고 腸이 寒하면 腸鳴과 飧泄이 됩니다. 胃가 寒하고 腸이 熱하면 腹脹하면서 또한 泄瀉를 하고, 胃가 熱하고 腸이 寒하면 배가 쉽게 고파고 小腹이 아프고 脹滿해집니다.

生은 人所同也 故로 以死生之情으로 動之則好惡之性을 未有不可移者나 是即前註所謂處順不順之間에 而因順相成之意라

22) ●李: 告之以其敗語之以其善은 卽告訴病人其疾病의 危害和好轉의 希望이라 導之以其所便開之以其所苦는 卽向病人介紹適宜의 調治方法이요 解除他們思想의 苦惱顧慮라 無道는 不通情理나 無道之人은 指前述王公大人과 肉食之君이라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胃는 찬 것을, 腸은 뜨거운 것을 마시고자 하여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면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또한 王公·大人과 肉食을 즐겨먹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방자하여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하고 남의 말을 가벼이 여겨 禁忌시킬 수 없으니, 금기시키면 그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면 病을 더 가중시키게 되니,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무엇을 먼저 治療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사람의 情緒는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좋아하니, 그 위태로움을 알려주고 좋은 점을 말해주며 그들이 편안해 하는 상태로 인도하고 그 고통스러운 점을 풀어주면 비록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도 어찌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腸中熱則出黃如糜 臍以下皮寒’에 대하여 『懸解』에는 ‘腸中熱則臍以下皮熱’로 되어 있는데, 楊은 腸冷하여 臍下皮寒하다고 보았고, 景岳은 ‘腸中熱則出黃如糜’를 上文의 ‘臍以上皮熱’의 아래 두어 胃中熱의 증상으로 보고 ‘臍以下皮寒’은 下文의 胃中寒과 腸中寒의 앞에 두어 腸胃中寒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病因과 症狀을 일치시키려고 하였으며, 張은 胃中寒하므로 臍以下皮寒한다고 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樓는 腸中이 熱하면 臍以下가 皮熱하게 된다고 하여 『懸解』와 같은 견해로 보았다. 여기서 楊과 張의 견해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제외하고 景岳처럼 絕句하면 病因病證이 일치하지만 胃中熱 腸中熱과 胃中寒 腸中寒으로 전개하는 문맥에 어긋난다. 따라서 腸中이 熱하면 臍以下가 皮熱해야 하므로 『懸解』와 같이 고치거나, 이 부분을 錯簡으로 보아서 ‘臍以下皮寒’을 下文의 ‘腸中寒則腸鳴飧泄’ 아래로 옮겨서 ‘臍以上皮熱’은 胃中熱, ‘臍以下皮

寒'은 腸中寒의 증상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胃欲寒飮'에 對하여 『太素』·『類經』에는 모두 '胃欲寒飮'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해야 뒤의 '腸欲熱飮'과 서로 對句가 되고 文意가 確연해지므로 '寒飮'을 '寒飮'으로 고쳐야 한다고 사료된다.

【較註에 對한 考察】

'便'에 대하여 楊 등은 相宜·適宜한 것으로 보았고, 志聰은 更의 뜻으로 보았는데, 兩者間에 서로 큰 차이는 없으나 환자는 病證에 相當하고 적절한 상황을 편안하게 여기며 또 의사는 이러한 調治를 취하여야 하므로 '편안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王公大人 血食之君 …… 禁之則逆其志 順之則加其病' 등의 文章을 통해서 볼 때 의사가 치료시에 환자의 뜻을 거역하고 放縱하여 病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無道한 사람일 지라도 계속 설득하여 治療해야 하는 醫師의 자세와 임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第三節 便治之法

【原文】

黃帝曰 治之는 奈何오

岐伯이 曰 春夏엔 先治其標하고 後治其本이요 秋冬엔 先治其本하고 後治其標니이다

黃帝曰 便其相逆者는 奈何오

岐伯이 曰 便此者는 食飮衣服이 亦欲適(1)寒溫(1)이니 寒無悽愴(2)(2)하고 暑無出汗이요 食飮者는 熱無灼灼(3)하고 寒無滄滄이니 寒溫中適 故로 氣將(4)持(3)(3)하야 乃不致邪僻(6)也니이다

【校勘】

1) 亦欲適寒溫: 『甲乙』 卷六 第二에는 '欲適寒溫'으로 되어 있다.

2) 寒無悽愴: 『太素』 卷二 「順養」에는 '寒無

悽愴'로, 『甲乙』에는 '寒無悽愴'으로, 『懸解』에는 '衣服者寒無悽愴'으로 되어 있다.

3) 氣將持: 『甲乙』에는 '氣搏持'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適: 適合, 적합할 직.
- (2) 悽愴(차창): 寒冷한 모양으로 몹시 슬프고 애달픔을 말한다.
- (3) 灼: 炙也, 더울 직.
- (4) 將: 有漸之辭, 장차 장.
- (5) 持: 把持, 가질 직.
- (6) 僻: 邪僻, 간사할 벽.

【較註】

[1] 春夏先治其標後治其本秋冬先治其本後治其標

楊·景岳·張·黃은 "本은 根과 本을 말한 것이요, 標는 末이니 枝葉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스림에 일정한 방법이 있으나, 개인적인 육구를 다르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변통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標本의 치료법을 내세워 그 개략적인 것을 언급하였다. 가령 봄과 여름에는 氣가 밖으로 나오므로 病도 또한 밖에 있으니 밖은 안의 標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 標를 다스리고 뒤에 그 本을 다스리는 것이요, 가을과 겨울에는 氣가 안으로 收斂되므로 病도 또한 안에 있으니 안은 밖의 本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 本을 다스리고 뒤에 그 標를 다스리는 것이다. 一說에 봄과 여름에는 發生하므로 먼저 標를 다스려 氣를 滋養해야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收藏하므로 먼저 本을 다스려서 精을 固密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역시 통한다."²³⁾고 하였고,

23) ○楊: 本은 謂根與本也요 標는 末也니 謂枝與葉也라 春夏之時엔 萬物之氣上升하야 在標하고 秋冬之時엔 萬物之氣下流하야 在本하니 候病所在하야 以行療法 故로 春夏엔 取標하고 秋冬엔 取本也라 ●景岳: 此는 言治有一

馬는 “또한 治法에 먼저 해야 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봄과 여름에는 陽氣가 밖에 있어서 病도 또한 밖에 있기 때문에 먼저 後病의 標를 다스린 뒤에 先病의 本을 다스리는 것이요, 가을과 겨울에는 陽氣가 안에 있어서 病도 또한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先病의 本을 다스린 뒤에 後病의 標를 다스리는 것이다.”²⁴⁾고 하였다.

[2] 便其相逆者奈何

楊·景岳은 “便其相逆은 順從할 수 없는 것 중에 다시 어쩔 수 뜻을 급혀서 그 정황에 적합토록 해야할 것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²⁵⁾고 하였고, 張·李는 “便其相逆은 胃는 차가운 것을 마시고자 하고 腸은 뜨거운 것을 마시고자 하여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病證에 적합한 治療方法을 가리킨 것이다.”²⁶⁾고 하였다.

定之法이나 有難以順其私欲에 而可爲假借者라 故로 特舉標本之治하야 以言其槩耳라 如春夏之氣達於外則病亦在外하니 外者는 內之標 故로 先治其標하고 後治其本이요 秋冬之氣斂於內則病亦在內하니 內者는 外之本 故로 先治其本하고 後治其標라 一曰春夏엔 發生하니 宜先養氣以治標하고 秋冬엔 收藏하니 宜先固精以治本이라하니 亦通이라 ○張: 姚士因이 曰 本標者는 內爲本而外爲標也니 春夏之氣는 發越於外 故로 當先治其標하고 後治其本이요 秋冬之氣는 收藏於內 故로 當先治其本하고 後治其標라 知本末之先後하야 氣可 舍調하야 爲萬民式하면 天之道畢矣라하니라 ○黃: 春夏에 先治其標하고 後治其本은 陽氣發泄之時엔 多外熱而內寒也일새요 秋冬에 先治其本하고 後治其標은 陽氣收藏之時엔 多內熱而外寒也일새라

- 24) ●馬: 且治有所先하고 法不容貶이니 春夏엔 陽氣在外하야 病亦在外 故로 先治其後病之標而後治其先病之本이요 秋冬엔 陽氣在內하야 病亦在內 故로 先治其先病之本而後治其後病之標라
- 25) ○楊: 謂適於口則害於身하고 違其心而利於體者는 奈何오 ●景岳: 便其相逆者는 謂於不可順之中에 而復有不得不委曲以使其情者也라
- 26) ○張: 便其相逆者는 謂胃欲寒飲하고 腸欲熱飲하야 兩者相逆하니 便之奈何라 ●李: 便其相逆은 指適合胃欲寒飲腸欲熱飲兩者相逆證情的

[3] 便此者食飲衣服亦欲適寒溫寒無悽愴暑無出汗食飲者熱無灼灼寒無滄滄寒溫中適故氣將持乃不致邪僻也

楊·馬·景岳·張·『白話』·廓·李는 “適은 適當함이다. 여기서는 꼭 부득이하게 환자의 뜻에 맞게 하더라도 적합하게 해주면서도 다만 그 적당함을 얻어야 함을 말한 것이니, 예를 들어 飲食과 衣服 같은 것이 治法에 차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차게 하려고 하면 약간 서늘하게만 하여 추워서 떨게 하지 말아야 하고, 治法에 덥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덥게 하려고 하면 조금 따뜻하게만 하여 땀이 나도록 하지 말아야 하며, 또 飲食을 뜨거운 것을 원하더라도 지나치게 뜨거운 것은 적합하지 못하고 찬 것을 원하더라도 지나치게 차게 먹지 않아야 한다. 차고 더운 것이 알맞게 中和되면 元氣가 유지될 수 있어 邪氣가 들어올 수 없으니, 이것이 곧 順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저것이나 이것을 다스리는 것과 큰 것이나 작은 것을 다스리는 것과 한 나라나 한 집안을 다스리는데 逆行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오직 順할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悽愴은 寒이甚하여 싸늘한 모양이다. 滄은 寒한 것이다. 僻은 音이 匹이니, 不正한 邪氣를 말한 것이다.”²⁷⁾고 하였고,

調治方法이라

- 27) ○楊: 滄滄은 寒이라 寒無悽愴은 謂調衣服也요 熱母灼灼은 謂調食飲也니 皆逆其所便也라 五臟之中和適이면 則其眞氣內守하고 外邪不入하니 病無由生이라 ○馬: 此治之者는 必有所先하야 不得以順其志而可舍法以徇之也라 至于飲食衣服之類하야 則彼固有所便하야 而吾亦可以曲全之耳라 故로 飲食衣服을 必欲其適乎寒溫이라 彼之衣服을 欲寒而法不可寒이면 但使之寒而不至於悽愴이요 欲熱而法不可熱이면 但使之熱而不至於出汗이 可也라 又彼飲食을 欲熱而法不可熱이면 但使之熱無灼灼이요 欲寒而法不可寒이면 但使之寒無滄滄이 可也라 寒溫中適이면 則正氣自持하야 內不致有邪僻矣라 凡此者는 皆所以便病人也라 否則治

張·廓은 “姚士因이 ‘이것은 飮食과 衣服은 날마다 먹고 입는 것이지만 적절히 和平하게 하면 陰陽의 氣를 고르게 維持할 수 있어서 邪氣가 발생하지 않게 됨을 말한 것이다. 胃가 熱하고 腸이 寒하면 胃는 찬 것을, 腸은 뜨거운 것을 마시고자 할 것이고, 만약 胃가 寒하고 腸이 熱하면 胃는 뜨거운 것을, 腸은 찬 것을 마시고자 할 것이니, 이는 寒熱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飮食을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지 않게 먹으면 체내의 寒熱을 조절할 수 있다. 四時의 氣는 寒暑가 밖에 있으므로, 추울 때엔 너무 춥지 않게 하고 더울 때엔 땀이 너무 나지 않도록 하면 외부의 陰陽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고, 吳氏가 ‘全篇의 大義는 外内の 陰陽을 調和함에 있고 陰陽脈論에 있지 않으니, 氣의 逆順을 論한 것이다. 그러므로 ‘寒溫이 적절하기 때문에 正氣가 보존되어 邪氣가 침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으니, 자연에는 寒暑가 있고 사람에는 陰陽이 있으므로 내 몸의 陰陽이 이미 조화되면 자연계의 寒暑를 막을 수 있음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였다. 28)”고 하였고, 『白話』는 “淒愴은 매섭게 찬 기

民與自治와 治彼與治此와 治小與治大와 治國與治家와 入國則問俗과 入家則問禮와 上堂則問禮는 未有可以逆而治之者어늘 而獨於臨病人之際에 可不問其所便也哉아 ●景岳: 適은 當也라 此는 言必不得已而欲便病人之情者라도 於便之之中而但欲得其當也니 卽如飮食衣服之類가 法不宜寒而彼欲寒이든 但可令其微寒而勿使至於淒愴이요 法不宜熱而彼欲熱者어든 但可令其微熱而勿使至於汗出이며 又如飮食之欲熱者라도 亦不宜灼灼之過요 欲寒者라도 亦不淒愴之甚이라 寒熱이 適其中和則元氣得以執持하여야 邪僻이 無由而致니 是卽用順之道也요 否則治民與自治와 治彼與治此와 治小與治大와 治國與治家에 未有逆而能治之也라 故로 曰夫惟順而已矣라하니라 淒愴은 寒甚淒涼之貌라 愴은 寒也라 僻은 不正之謂라 ○李: 淒愴은 寒涼貌라 灼灼은 熱之甚이라 淒愴은 寒之甚이라 寒溫中適은 卽寒溫適中而不過寒過熱이라 邪僻은 卽邪氣라

28) ●張: 姚士因이 曰 此는 言飮食衣服은 乃日用

운이 빠에 사무쳐서 지독하게 추운 상태를 형용한 것이다. 灼灼은 불다는 것처럼 끓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淒愴은 매운 찬 모양이다. 29)”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治療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봄과 여름에는 먼저 標病을 다스린 뒤에 本病을 다스리며, 가을과 겨울에는 먼저 本病을 다스린 뒤에 標病을 다스려야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난 것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이를 편안하게 하려면 음식과 의복이 또한 寒溫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니, 춥게 하여 너무 추워서 떨지 않도록 하고 덥게 하여 너무 더워서 땀나지 않도록 하

平常之事로대 所當適其和平이면 則陰陽之氣를 可以持平하여 不致邪僻之所生也라 夫胃中熱하고 腸中寒하면 則胃欲寒飲하고 腸欲熱飲矣요 如胃中寒하고 腸中熱하면 則胃欲熱飲하고 腸欲寒飲矣니 此는 寒熱之在內也라 故로 飮食者는 熱無灼灼하고 寒無淒愴하면 則在內之寒熱을 可調矣라 四時之氣는 寒暑之在外也니 時值涼寒엔 無使其淒愴하고 時值暑熱엔 無使其汗出하면 則在外之陰陽을 可調矣라하니라 吳氏曰 道篇大義는 在調和外內之陰陽이요 非陰陽脈論이니 乃論氣之逆順也 故로 曰寒溫中適이라 故로 氣將持하여야 乃不致邪僻也라하니 謂天有寒暑하고 人有陰陽하니 我之陰陽이 旣和면 可以禦天地寒暑라하니라 ○廓: 適은 適宜니 呂氏春秋適威高注에 適은 宜也라하니라 淒愴은 卽淒愴이니 漢書王褒傳顏注에 淒愴은 寒冷也라하니라 灼灼은 燒燙이니 說文火部에 灼은 炙也라하니라 淒愴은 寒涼이니 說文水部에 愴은 寒也라하니라 將은 猶乃也라 國語越語韋注에 持는 守也라하니라

29) ●白話: 淒愴은 是形容嚴寒徹骨하여 寒到極點의 樣子라 灼灼은 是形容象火燒那樣的 燙이니 說文에 灼은 炙也라하니라 淒愴은 是很冷의 樣子니 列子에 日初出淒淒涼涼이라하니라

며, 飮食은 너무 뜨겁거나 차갑게 먹지 않아야 하니, 寒溫을 적합하게 하면 氣가 안팎을 主持할 수 있어 邪氣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寒無悽愴’에 對하여 『太素』에는 ‘寒無淒淒’로, 『甲乙』에는 ‘寒無悽愴’으로, 『懸解』에는 ‘衣服者 寒無悽愴’으로 되어 있는데, 前文에 飮食과 衣服의 寒溫이 적합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고 後文에 ‘飮食者 熱無灼灼 寒無滄滄’가 있으므로 『懸解』와 같이 ‘衣服者 寒無悽愴 暑無出汗’으로 對句를 만들면 의미가 확연해지므로 ‘衣服者’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較註에 對한 考察]

治療法을 살펴볼 때 春夏에는 先治其標하고 後治其本하며 秋冬에는 先治其本하고 後治其標한다고 했으니, 春夏에는 陽氣가 浮越하고 陰氣가 沈伏하며 秋冬에는 陽氣가 潛降하고 陰氣가 鬱衍되므로 聖人이 春夏에 養陽하고 秋冬에 養陰한다는 養生法과 그에 따른 治療法에 대해 언급하였다.

‘悽愴’은 寒冷한 모양을 가리킨 것이고, ‘灼灼’은 燒燙하여 熱이 甚한 것이며, ‘滄滄’은 寒涼한 것이 甚한 것이고, ‘持’는 守로 主持한다는 것이며, ‘邪僻’은 不正한 邪氣가 侵入해 들어온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飮食과 衣服의 寒溫이 中適하면 正氣가 유지되어 邪氣가 虛함을 틈타 들어오지 못한다는 예방의학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였다.

第二章 五臟六腑의 外候

第一節 五臟의 外候

【原文】

黃帝曰 本藏에 以身形支節膈(1)肉으

로 候五藏六腑之小大焉이라하야늘 今夫王公大人과 臨朝即位之君而問焉이면 誰可捫循(2)之而後에 答乎리잇고

岐伯이 曰 身形支節者는 藏府之蓋也요 非面部之閔(3)也니이다

黃帝曰 五藏之氣를 閔于面者는 余已知之矣어니와 以肢節로 知而閔之는 柰何오

岐伯이 曰 五藏六腑(1)者는 肺爲之蓋니 巨肩陷咽(2)으로 候見其外니이다

黃帝曰 善하다

岐伯이 曰 五藏六腑(3)는 心爲之 주요 缺盆爲之道니 髑骨(4) (4)有餘로 以候膈肝(5)니이다

黃帝曰 善하다

岐伯이 曰(5) 肝者(6)는 主爲將하야 使之候外하니 欲知堅固면 視目小大(6)니이다

黃帝曰 善하다

岐伯이 曰 脾者(6)는 主爲衛하야 使之迎糧하니 視脣舌好惡하야 以知吉凶이니이다

黃帝曰 善하다

岐伯이 曰 腎者(6)는 主爲外하야 使之遠聽하니 視耳好惡하야 以知其性이니이다

【校勘】

- 1) 五藏六腑: 『甲乙』 卷六 第三에는 ‘五藏’으로 되어 있다.
- 2) 巨肩陷咽: 『語譯』·『校釋』에서 모두 ‘上肩陷咽’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 3) 黃帝曰善岐伯曰五藏六腑
『甲乙』에는 이 글자들이 없다.
- 4) 髑骨
『類經』에는 ‘髑骨’로 되어 있다.
- 5) 黃帝曰善岐伯曰
『甲乙』에는 이 글자들이 없다.
- 6) 者: 『甲乙』에는 이 글자가 없다.

【字句解】

- (1) 脰: 肘膝後肉如塊者, 살덩어리 군.
 (2) 捫循(문순): 어루만짐. *捫: 摸也, 더듬을 문. 循: 摩也, 어루만질 순
 (3) 謁: 觀也, 볼 열.
 (4) 髕骨(팔골): 쇄골의 내측 끝을 말한다.
 *髕: 骨端, 뼈끝 팔.
 (5) 轔肝(갈우): 蔽心骨로 胸骨劍狀突起이다.
 *轔: 缺盆骨, 동정뼈 갈. 肝: 缺盆骨, 가리우.
 (6) 小大(소대): 여기서는 눈의 크기 및 明暗을 말한다.

【較註】

[1] 本藏以身形支節脰肉候五藏六腑之小大焉 今夫王公大人臨朝即位之君而問焉誰可捫循之而後答乎

馬·景岳·『校釋』은 “이것은 身形과 支節로써 五臟을 살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本藏」은 本經의 篇名이다. 黃帝께서 「本藏篇」에서 身形·支節·脰肉으로써 五臟六腑의 대소를 살필 수 있다고 했으니, 王公·大人과 朝廷을 맡아 즉위한 君主는 신분이 지극히 존귀한 이들이니 좇아서 물을 수 있으나, 누가 감히 그 支節·脰肉을 더듬어 만진 뒤에 대답하겠는가? 더듬고 만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서 대답할 때 근거할 것이 없음을 물은 것이다.³⁰⁾”고 하였고, 張은 “이것은 望診으로 아는 者를 말한 것이니, 곧 國土라 일컬을만하다. 사람은 地를 바탕으로 태어나고 목숨은 天에 달려 있으니,

30) ●馬: 此는 言身形支節로 可以候五臟也라 本藏은 本經篇名이라 帝問本藏에 以身形支節脰肉으로 候五臟六腑之小大라하니 則王公大人과 臨朝即位之君은 分至尊也니 從而問之나 誰敢捫循其支節脰肉而後答之아 捫之固難하야 答之無據라 ○景岳: 本藏은 即前本經篇名이라 捫은 摸也요 循은 摩也라 言王公之尊貴를 誰可得而摩摸며 將何所據而相答也라 ○校釋: 捫循은 按循이요 撫摸라

天地의 氣를 合한 것을 사람이라 命한 것이다. 하늘에서는 氣를 주관하고 땅에서는 形을 이루니, 이것이 하늘이 命을 탄생시킨 것이니 形을 세우고 氣를 정하여 壽夭를 보고자 하면 반드시 이에 밝아야 한다. 이로써 五臟의 氣는 색깔에 나타나고 臟腑의 體는 形에 相應하니, 이미 面部를 보아서 五臟의 氣를 알고 또한 마땅히 그 形을 보아서 臟腑의 形을 알 수 있으니, 氣를 알고 形을 아는 것을 이에 가히 望診으로 아는 神醫라 할 것이다.³¹⁾”고 하였다.

[2] 身形支節者藏府之蓋也非面部之謁也五藏之氣關於面者余已知之矣以肢節而謁之奈何

馬·景岳은 “身形·肢節은 얼굴과 다르니, 이것은 體格의 드러난 모양의 형태으로써 그 臟腑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다.³²⁾”고 하였고, 廓은 “여기의 蓋字는 아래의 肺爲之蓋와 뜻이 다르다. 이 蓋字에는 合의 뜻이 있으니, 『史記·司馬相如列傳』을 찾아 보라. 臟腑之蓋는 身形肢節이 臟腑에 合함을 말한 것이다.³³⁾”고 하였다.

[3] 五藏六府者肺爲之蓋巨肩陷咽候見其外

馬·景岳·『白話』·李는 “肺의 위치가 가장 높으므로 五臟의 華蓋가 된다. 咽은 여기서는 頸部의 喉頭를 가리킨 것이다. 巨肩陷咽은 생략되어져 있는 글이니, 巨肩은 양쪽 어깨의 넓

31) ●張: 此는 言望而知之者니 斯可謂國土也라 夫人生于地하고 懸命于天하니 天地合氣를 命之曰人이라 在天主氣하고 在地成形하니 此天之生命이니 所以立形定氣而視壽夭者는 必明乎此라 是以로 五藏之氣는 見於色하고 藏府之體는 應乎形하니 既能關於面하야 而知五藏之氣하고 又當閱其形하야 以知藏府之形이니 知氣知形을 斯可謂望知之神이라

32) ○馬: 支節은 爲臟腑之蓋요 非此面部易謁 故로 五藏之氣關於面을 帝強知之나 然이나 支節은 亦有可謁而知니 不必于捫循之也라 ●景岳: 身形支節이 與面不同하니 此는 欲以體貌之形으로 察其藏府之候也라

33) ●廓: 此蓋字는 與下肺爲之蓋로 義異라 此蓋字에 有合義하니 見史記司馬相如列傳索隱이라 臟腑之蓋는 是謂身形肢節合于臟腑라

고 좁음과 두텁고 얇음을 가리킨 것이요, 陷咽은 喉頭의 높고 낮음과 나오고 들어감을 가리킨 것이다. 候는 진찰하여 살피는 것이다.³⁴⁾ 고 하였다.

[4] 五藏六府心爲之主缺盆爲之道髑骨有餘以候髑肝

馬·張·李는 “心은 臟腑의 君主로 氣가 升降하는 경로가 缺盆에 있으니, 곧 髑肝의 骨端을 髑骨이라 하는데, 이 髑骨이 잘 발달하여 밖으로 드러나면 髑肝을 살피서 心의 堅脆·小大·高下·偏正을 알 수 있다.³⁵⁾” 고 하였고, 景岳은 “缺盆은 어깨 앞쪽 뼈 위의 부분에 있다. 五藏六腑는 모두 心에서 명령을 받기 때문에 (心이) 주인이 되고, 脈은 모두 위로 缺盆으로 나오므로 통로가 되는 것이다. 髑를 『廣雅』에서 ‘骨甫阿다.’고 했는데, 骨甫阿는 바로 무릎 뼈의 명칭이다. 髑肝는 心臟을 덮고 있는 뼈로 鳩尾라고도 한다. 이것들을 관찰하여 心의 大小·高下·堅脆·偏正을 알 수 있다.³⁶⁾”

34) ○馬: 肺는 爲臟腑之蓋니 凡巨肩陷咽者로 肺之小大高下堅脆偏正을 可候矣라 ○景岳: 五藏之應天者가 肺 故로 肺는 爲五藏六府之蓋니 觀巨肩陷咽者即其外候야 而肺之大小高下堅脆偏正을 可知矣라 ○白話: 巨肩陷咽은 是指肩의 高度及肩下咽部凹陷處라 ●李: 肺位最高 故로 爲五藏의 華蓋라 咽은 此處指頸部喉頭라 巨肩陷咽爲省文이니 巨肩은 代指雙肩의 寬窄厚薄이요 陷咽은 代指喉頭의 高低突出라 候는 診候라

35) ●馬: 心은 爲臟腑之主요 而氣之升降이 其道在于 缺盆하니 即其髑肝之骨端을 曰髑骨者니 有餘以形于外면 則可以驗髑肝야 而知其心之堅脆小大高下偏正矣라 ○張: 髑髑는 胸骨也라 ○李: 髑은 說文骨部에 骨端也라 하니 此髑骨은 指胸骨上方鎖骨內側端이라 髑肝는 指胸骨下端的劍突이라 全句는 謂觀察兩鎖骨內側端의 距離和劍突의 形狀位置等이면 就可以測知心臟의 強弱大小位置等이라

36) ●景岳: 缺盆은 居肩之前骨之上이라 五藏六府는 皆稟命於心 故로 爲之主요 而脈이 皆上出於缺盆 故로 爲之道라 髑는 廣雅에 曰髑阿也라 하니 髑阿는 卽膝骨之名이라 髑肝는 蔽心之骨이니 亦名鳩尾라 觀乎此하야 而心之小大

고 하였고, 『白話』·廓·『校釋』은 “髑骨은 곧 肩端骨이다. 『玉篇·骨部』에 ‘髑과 髑肝는 缺盆骨이다.’고 했으니, 以候髑肝는 髑肝의 部位와 形態로 心臟의 高下와 堅脆를 헤아려 살필 수 있음을 說明한 것이다.³⁷⁾” 고 하였다.

[5] 肝者主爲將使之候外欲知堅固視目小大

馬·景岳·張은 “肝은 將軍의 官으로 그 氣가 굳세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고 눈으로 밖을 살피게 한다. 눈은 肝의 外候이므로 눈을 살피면 肝의 상태를 알 수 있다.³⁸⁾” 고 하였고, 『白話』는 “肝臟의 特性은 지혜롭고 용맹한 將軍처럼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肝臟의 強弱 여부는 눈의 小大를 보면 된다.³⁹⁾” 고 하였고, 廓은 “視目小大는 눈의 明暗을 觀察하는 것이다. 小大는 明暗과 같으니, 『易·繫辭上』에 ‘이런 까닭으로 卦에 小大가 있다.’고 했고, 韓注에 ‘그 道가 光明한 것을 大라 한다.’고 했으니, 그 뜻을 引申하여 뒤집으면 光明치 못한 것이 小가 된다. 물건이 크면 밝게 보이고 작으면 어둡게 보이는 것이다.

高下堅脆偏正을 可知矣라 * 髑: 阿也, 무릎뼈고. 髑: 阿也, 무릎뼈부.

37) ○白話: 髑는 音括이요 就是缺盆骨兩旁之端이니 卽肩端骨이라 髑髑는 爲胸骨下端蔽心之骨이요 又稱鳩尾骨或蔽骨이니 也就是胸骨劍突이라 以候髑髑는 就是從胸骨劍突의 部位和 形態로 可以測候心臟의 高下堅脆라 ●廓: 髑骨은 卽肩端骨이라 玉篇骨部에 髑髑肝는 缺盆骨이라 하니 以候髑肝는 是說從髑肝의 部位和 形態로 可以測候心臟의 高下堅脆라 ○校釋: 髑骨은 指胸骨上方鎖骨內側端部分이라 沈彤이 釋骨에 此髑骨은 乃謂缺盆骨兩旁之端이니 卽肩端骨也라 하니라 髑肝는 指胸骨下劍突部位니 俗稱蔽心骨이라

38) ○馬: 肝은 爲將軍之官이니 使之候視乎外 故로 欲知肝之小大高下堅脆偏正이여든 當視其目之小大耳라 ●景岳: 肝者는 將軍之官이니 其氣剛強 故로 能捍禦而使之候外라 目者는 肝之外候 故로 察於目則可知肝之狀矣라 ○張: 肝은 乃將軍之官 故로 主爲將이라

39) ●白話: 肝臟의 特性은 好比智勇의 將軍하고 有防禦外侮의 能力하니 要了解肝臟의 強弱與否는 只要看眼目의 小大라

『四時氣』에 ‘그 눈의 색을 본다.’고 했으니, 이른바 색은 곧 눈의 明暗을 살피는 것을 말한 것이니, 밝으면 눈이 清明하고 어두우면 눈이 混濁해진다. 눈은 肝의 官이니, 눈의 明暗을 보아 肝臟의 變態의 有無를 살필 수 있으니, 눈동자의 大小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치 않을 것이다.⁴⁰⁾”고 하였고, 李는 “候外는 外部의 情況을 觀察하는 것이다. 堅固는 여기서는 肝臟의 強弱과 大小와 位置 등을 말한다. 目小大는 여기서는 양쪽 눈의 색과 형태와 시각기능 등의 여러 情況을 代表한다.⁴¹⁾”고 하였다.

[6] 脾者主爲衛使之迎糧視唇舌好惡以知吉凶

馬·景岳·張은 “脾는 水穀의 運化를 주관하여 肌肉을 자라게 하니, 五臟六腑가 다 脾가 길러줌에 의지하므로 脾가 衛氣를 주관하는 것이다. 衛는 臟腑를 護衛하는 것이니, 『五藏津液別篇』에서도 또한 ‘脾가 護衛한다.’고 했다. 脾는 倉廩의 官이 되어 職責이 轉輸하는데 있으므로 穀食을 받아들인다고 말한 것이니, 음식과 脣舌의 善惡을 관찰하면 脾의 吉凶을 가히 알 수 있다 말한 것이다.⁴²⁾”고 하였고,

『白話』·廓은 “脣舌이 맛의 좋아하고 싫어함을 근거로 脾病의 吉凶을 알 수 있다.⁴³⁾”고 하였고, 李는 “脾氣는 口로 通하고 脣에 榮華하며, 그 脈이 舌本에 이어지고 舌下에서 흘러지므로 脣舌의 색과 形과 口味의 常變을 관찰하면 脾臟의 強弱과 病情의 輕重을 알 수 있다.⁴⁴⁾”고 하였다.

[7] 腎者主爲外使之遠聽視耳好惡以知其性

馬·景岳·張은 “腎은 耳에 開竅하므로 밖을 주관하니, 멀리 들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堅固는 五藏에 堅脆함이 있는 것이요, 吉凶은 臟이 편안하면 吉하고 病들면 凶한 것이다. 性은 五藏에 端正함과 偏傾함의 성질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⁴⁵⁾”고 하였고, 『白話』·廓은 “腎臟의 기본 기능에서 중요하게 밖으로 표현된 것이 귀에 開竅를 하여 들을 있다는 것이므로, 聽覺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근거로 腎의 強弱과 사람의 性情을 헤아릴 수 있다.⁴⁶⁾”고 하였고, 李는 “其性은 여기서는 腎臟의 強弱과 虛實과 位置 등의 狀況을 가리킨 것이다.⁴⁷⁾”라 하였다.

40) ●廓: 視目小大는 觀察眼之明暗이라 小大는 猶云明暗이니 易繫辭上에 是故卦有小大라하고 韓注에 其道光明曰大라하니 引其義而反之면 則不光明者爲小라 凡物象이 大則明하고 小則暗이라 四時氣에 視其目色이라하니 所謂色은 卽謂察目之明暗이니 明則眼清郎하고 暗則眼混濁이라 目爲肝之官이니 視其目之明暗하여 從而可察肝臟의 有無變態니 如泛以目珠小大爲解면 似不合이라

41) ●李: 候外는 觀察外部情況이라 堅固는 此處謂肝臟의 強弱大小位置等이라 目小大는 此處代表兩目的 色形과 及視覺功能等多種情況이라

42) ○馬: 脾主爲衛하여 使之在外以迎糧 故로 視脣舌好惡하여 而知脾之小大高下堅脆偏正矣라 ●景岳: 脾는 主運化水穀하여 以長肌肉하니 五臟六腑가 皆賴其養 故로 脾主爲衛라 衛者는 藏府之護衛也니 五藏津液別篇에 亦曰脾爲之衛라하니라 脾는 爲倉廩之官하여 職在轉輸 故로 曰使之迎糧이니 謂察其飲食及脣舌之善惡하면 則脾之吉凶을 可知也라 ○張: 脾는 乃轉運之官 故로 主爲衛라

43) ●白話: 只要根據脣舌對於味道的好愛與厭惡라야 就可以了解脾病的吉凶이라 ○廓: 觀察脣舌의 愛憎하면 就可知道脾病的吉凶이라

44) ●李: 脾氣는 通于口하고 榮于脣하며 其脈이 連舌本하고 散舌下 故로 視察脣舌의 色形及口味의 常變하면 則脾臟의 強弱及病情의 輕重을 可知라

45) ○馬: 腎主爲外하여 使之遠聽 故로 視耳之好惡하여 而知腎之小大高下堅脆偏正矣라 ○景岳: 腎은 爲作強之官하여 伎巧所出 故로 主成形而發露於外라 其竅爲耳 故로 試使遠聽及耳之善惡하면 則腎藏之象을 可因而知之矣라 ●張: 腎은 開竅於耳 故로 主爲外니 言其聽之遠也라 堅固者는 五藏之有堅脆也요 吉凶者는 藏安則吉하고 藏病則凶也라 性者는 五藏有端正偏傾之性也라

46) ●白話: 腎臟의 基本功能에 主要表現在外面的은 就是因它開竅于耳하여 能可聽覺이니 根據聽覺方面所愛好與厭惡의 하면 可以測候腎의 強弱和人的性情이라 ○廓: 腎臟은 主水液하고 用他能够遠聽하니 觀察耳力의 聰否하면 可以了解腎臟의 強弱이라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本藏篇」에서 身形·支節·肌肉으로써 五臟六腑의 크기를 살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王公·大人이나 朝廷을 맡아 즉위한 君主가 묻는다면 누가 감히 그들의 몸을 어루만진 뒤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身形·支節은 臟腑의 덮개이므로 얼굴에서만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五藏의 氣를 얼굴에 살피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거니와 支節로써 알려고 살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五臟六腑에서 肺가 華蓋가 되니, 어깨가 크고 들려 있으며 咽喉가 들어간 것으로써 그 밖에 나타난 것을 살핍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五臟六腑에서 心이 君主가 되고 缺盆은 그 통로가 되니, 髑骨의 有餘함으로써 鬲疝을 살핍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肝은 將軍이 되어 外部를 살피는데, 그 堅固한지를 알고자 하면 눈의 小大를 보아야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脾는 衛氣를 주관하여 飲食을 맞아들이는데, 입술과 혀의 좋고 나쁨을 보고 그 吉凶을 알 수 있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腎은 外部를 주관하여 멀리 들을 수 있게 하는데, 귀의 좋고 나쁨을 보고 腎의 性能을 알 수 있습니다.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巨肩陷咽’에 對하여 『語譯』 등에서 ‘巨’字에는 ‘高’의 뜻이 없고 篆形이 서로 비슷하여 錯誤된 것이므로 ‘上肩陷咽’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李와 같이 ‘巨’의 뜻으로 肺가 臟腑의 華蓋가 되어 높이 있지만 어깨의 厚薄과 넓고 좁음으로 肺의 상태를 살필 수 있으며, ‘上’字로 볼 때 『本藏篇』의 ‘小大高下堅脆偏正’와 文意가 相通하므로 앞으로 이에 對한 研究가 行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較註에 對한 考察]

‘身形肢節者藏府之蓋也’에서 ‘蓋’字에 對하여 廓은 ‘슴’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身形肢節이 臟腑에 合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合당하다고 사료된다.

‘髑骨’에 對하여 『類經』에는 ‘髑骨’로 되어 있어 景岳은 膝骨이라고 했고, 李 등은 양쪽 鎖骨의 內側端이라고 했는데, ‘鬲疝’가 胸骨의 劍上突起이므로 心의 상태를 살피볼 수 있는 鎖骨內側端으로 보는 것이 文意上 옳다고 사료된다.

‘視目大小’에 對하여 李는 눈의 色形과 視覺機能을 살피본다는 것으로, 廓은 눈의 明暗을 살핀다는 뜻으로 注解하였는데, 눈의 明暗機能뿐만 아니라 색깔·형태까지 살피본다는 뜻으로 綜合해 보는 것이 合당하리라 사료된다.

‘脣舌好惡’에 對하여 景岳 등은 外形을 중심으로, 『白話』 등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맛의 機能으로, 李는 外形의인 形色과 口味의 常變으로 보았는데, 李와 같이 脣舌의 外形과 색깔과 口味의 기능을 종합하여 보는 것이 文意上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性’에 對하여 馬蒔는 象으로, 張志聰은 端正하고 偏傾한 性이 있다는 뜻으로, 李는 強弱虛實位置 등의 情況을 말하는 것으로 注解하였는데, 귀의 好惡을 통하여 腎臟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47) ●李: 其性은 此處指腎臟의 強弱虛實位置等狀況이라

第二節 六腑의 外候

【原文】

黃帝曰 善하다 願聞六府之候하노이다
岐伯이 曰 六府者는 胃爲之海¹⁾니
廣骸²⁾ (1)大頸張胸이면 五穀乃容이요
鼻隧²⁾以長으로 以候大腸하고 脣厚人
中長으로 以候小腸이며 目下果³⁾大면
其臈乃橫³⁾이요 鼻孔在外면 膀胱漏泄
이요 鼻柱中央起면 三焦乃約이니 此所
以候六府者也라 上下三等이면 藏安且良
矣니이다

【校勘】

- 1) 胃爲之海: 『類經』 卷三 「身形候藏府」에 '胃之爲海'로 되어 있다.
- 2) 廣骸: 『千金』에는 '廣骸'로 되어 있다.
- 3) 目下果: 『甲乙』 卷一第三에는 '目下裏'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骸: 與骸同, '骸'와 같은 글자다. *骸: 頰肉, 뺨에 붙은 살 개.
- (2) 鼻隧(비수): 鼻道, 콧 길. *隧: 道也, 길 수.
- (3) 橫: 盛氣充滿, 왕성한 기운이 가득찰 광.

【較註】

[1] 六府者胃爲之海廣骸大頸張胸五穀乃容鼻隧以長以候大腸脣厚人中長以候小腸

馬는 "이것은 身形으로써 六腑를 살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⁴⁸⁾"고 하였고, 景岳은 "骸는 骸骨이니, 廣骸는 골격이 크다는 말이요, 또한 脛骨을 骸라고도 한다.⁴⁹⁾"고 하였고, 張은 "鼻는 肺의 구멍이요 大腸은 肺의 府이므로 鼻로써 大腸을 살필 수 있다. 口는 곧 脾의

48) ●馬: 此는 言身形으로 可以候六腑也라

49) ●景岳: 骸는 骸骨也니 廣骸者는 言骨格之大요 又脛骨을 曰骸라

구멍이요 小腸은 脾胃의 濁氣를 受盛하고 胃로 胃에 屬하므로 唇과 人中으로써 小腸을 살필 수 있다.⁵⁰⁾"고 하였고, 『白話』·廓·『校釋』·李는 "六腑가 轉輸한 水穀化物은 모두 胃에서부터 오므로 胃는 六腑의 海가 된다. 骸는 頰肉이다. 胃가 肌肉을 주관하니, 그 脈이 大迎으로 나와 頰車와 人迎으로 내려가 喉嚨을 따라 缺盆을 좇아 가슴 안쪽으로 내려가므로 頰肉이 豐滿하고 頸項이 굵고 단단하며 가슴팍이 두툽고 實하면 胃臟이 強建하여 많은 水穀을 受納함을 알 수 있다. 鼻隧는 鼻竅의 길을 말하는데, 鼻道가 깊고 긴 경우는 大腸이 強健한 것이고, 口가 두툽고 人中이 긴 경우는 小腸이 強健함을 나타낸 것이다.⁵¹⁾"고 하였다.

[2] 目下果大其臈乃橫鼻孔在外膀胱漏泄鼻柱中央起三焦乃約此所以候六府者也上下三等藏安且良矣

馬·張은 "눈은 곧 肝의 구멍이므로 눈 밑으로써 臈을 살필 수 있다. 膀胱은 津液의 府니 氣化하면 小便이 나오게 되고, 鼻孔在外는

50) ●張: 鼻는 乃肺之竅요 大腸者는 肺之府 故로 鼻以候大腸이라 口는 乃脾之竅요 小腸은 受盛脾胃之濁而上屬于胃 故로 唇與人中으로 以候小腸이라

51) ○白話: 海는 是指善於容納的意思라 海論에 胃者水穀之海라하니 這就是說明胃的主要功能은 在於能納收和消化外來的一切飲食物 故로 稱爲水穀之海라 隧는 與隧同이니 深遠의 意思라 鼻隧以長은 就是指鼻腔의 深度與長度而言이라 ○廓: 胃爲之海는 是借海比喻胃能容納食物이라 海論에 胃者는 水穀之海라하니라 大頸은 謂頸圍粗壯이라 鼻隧는 謂鼻道라 詩桑柔疏에 隧者는 道之別名이라하니라 ○校釋: 骸는 頰肉이라 鼻隧는 此指鼻道而言이라 ●李: 六腑轉輸의 水穀化物俱來自于胃 故로 胃는 爲六腑之海라 骸는 頰肉이라 胃主肌肉하니 其脈이 出大迎하야 下頰車하고 下人迎하야 循喉嚨하야 從缺盆하야 下乳內廉 故로 頰肉豐滿하고 頸項粗壯하고 胸膈厚實하면 表明胃臟強建하야 能受納較多의 水穀이라 鼻隧는 指鼻竅之道라 鼻道深長하면 顯示大腸強健이라 脣厚而人中溝長하면 說明小腸強健이라

鼻孔의 기운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니, 곧膀胱이 漏泄하는 것은 대개 上竅가 通하면 下竅로 泄하기 때문이다. 三焦는 決瀆의 官으로 水道가 나온다고 했으니, 氣가 約하면 그치고 約하지 못하면 遺尿한다. 鼻柱의 中央이 일어난 것은 鼻의 吸氣가 中央을 따라 일어남을 말한 것이니, 곧 三焦가 이에 約束한 것이니 대개 위에서 기운이 吸入되면 아래에서 約束하고 위에서 기운이 呼出하면 아래에서 通하게 하니, 上下의 開闔이 相應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臟腑의 形이 外內로 相應함을 말한 것이니, 또한 氣의 주관하는 바로 말미암은 것이다. 上下三等은 天地人의 三部가 相等함을 말한다.⁵²⁾”고 하였고, 景岳·『白話』는 “果는 裹와 같으니, 아래의 눈꺼풀이다. 橫은 굳세다는 것이요, 在外는 치켜들려 드러난 것이요, 約은 견고하고 치밀한 것이다. 臟은 안에 자리하고 形이 밖으로 나타나므로 몸과 얼굴의 밖으로 드러난 형상을 들어 안의 六腑를 살필 수 있다. 그런데 몸이나 얼굴은 또한 반드시 상중하의 三停이 서로 같아야 비로소 臟腑가 서로 편안해지고 그 善함을 얻게 된다. 앞의 『本藏篇』에서는 五臟에 상응하는 皮脈肉爪骨으로써 六腑를 살핀다고 했으므로 그 뜻이 이것과 조금 다르니, 마땅히 서로 탐구해야 한다.”⁵³⁾고

52) ●馬: 三焦乃約은 三焦爲決瀆之官者니 約而不漏也라 身形上中下三停相等이면 則臟腑在內者는 安且善矣라 ○張: 目은 乃肝之竅 故로 目下로 以候膽이라 膀胱者는 津液之府니 氣化則出하고 鼻孔在外는 謂鼻孔之氣出在外요 則膀胱漏泄은 蓋上竅通而下竅泄也라 三焦者는 決瀆之官으로 水道出焉이니 氣約則止하고 不約則遺라 鼻柱中央起者는 謂鼻之吸氣從中央而起요 則三焦乃約은 蓋上氣吸入則下約하고 上氣呼出則下通하니 上下開闔之相應也라 此는 言藏府之形外內相應者니 亦由氣之所管也라 上下三等은 謂天地人三部之相等也라

53) ●景岳: 果는 裹同이니 目下囊裹也라 橫은 剛強也요 在外는 掀露也요 約은 固密也라 藏居於中하고 形見於外 故로 舉身面之外狀하여 而可以候內之六腑라 然이나 或身或面에 又必

하였고, 丹波는 “馬氏가 『四時氣篇』의 三焦約으로 注解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五色篇』에 ‘面王 以上은 小腸이요, 面王 以下는 膀胱이다.’고 했으니, 鼻主中央이 곧 下焦의 처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六府의 三焦는 바로 下焦를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다. 『麻衣相法』에 ‘三停이 平等하면 일생토록 衣祿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했고, 注에서 ‘髮際로부터 印堂까지가 上停이요, 山根으로부터 准頭까지가 中停이요, 人中으로부터 地閣까지가 下停이니, 이것이 面上의 三停이요, 頭腰足은 身上의 三停이다.’고 했다. 옛날에 ‘面上의 三停은 額鼻閣이요, 身上의 三停은 足頭腰이다.’고 했으니, 곧 相家의 三停의 說임을 알 수 있다. 本節에 근거하던대 『骨度篇』은 君子三折의 뜻이다.⁵⁴⁾”고 하였고, 龐·『校釋』은 “橫은 恣橫이다. 『漢書·田蚡傳』 顏注에 “橫은 恣다.”고 했다. 鼻柱中央起는 鼻가 편평하고 낮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廣雅·釋詁一』에 ‘約은 好다.’고 했다. 三은 參과 같으니 參에는 相의 뜻이 있다. 上下相等은 『陰陽二十五人』에서 말한 ‘上下相稱’

上中下三停이 相等이라야 庶藏府相安而得其善矣라 前本藏篇은 以五藏之皮脈肉爪骨로 而候六府하야 其義與此로 稍異하니 所當互求라 ○白話: 目下果大는 就是指下眼胞而言이라 三은 是指全身或面部를 可劃分爲上中下三停이라 頭腰足이 爲身之三停이요 面之三停은 自髮際至印堂히 爲上停이요 山根至准頭히 爲中停이요 人中至地閣히 爲下停이라 上下三等은 就是形容全身和面部的三停이 都是平均相等的意思라

54) ●丹波: 馬가 以四時氣篇三焦約으로 注之는 非也라 五色篇에 面王以上者는 小腸也요 面王以下者는 膀胱也라하니 卽知鼻主中央은 卽下焦之處也라 又知六府之三焦는 正指下焦也라 麻衣相法에 云三停平等이면 一生衣祿無虧라하고 注에 自髮際至印堂히 爲上停이요 山根至准頭히 爲中停이요 人中至地閣히 爲下停이니 此面上之三停也요 頭腰足爲身上三停也라하니라 古에 云面上三停은 額鼻閣이요 身上三停은 足頭腰이라하니 乃知相家三停之說이라 原于本節컨대 及骨度篇은 君子三折之義라

과 같다. 옛 注釋에서는 三停相等으로 說明하였고, 『麻衣相法』을 인용하여 증명하였으나 잘못 注解한 것이다.⁵⁵⁾”고 하였고, 李는 “膀胱漏泄은 膀胱이 津液을 간직하는 기능이 喪失되어 小便이 淋漓거나 혹은 不禁함을 가리킨 것이다. 鼻孔掀露는 肺臟이 虧損되어 肺가 通調水道하고 下輸膀胱하므로 肺病이 묶여져 膀胱에 미쳐서 津液이 失藏된 것이다. 約은 約束이니, 이것은 水液을 決瀆하는 기능이다. 上中下三焦의 氣가 胃와 小腸으로부터 나와 分別되고 三焦水液의 敷布와 運行은 脾의 轉輸에서 決斷을 取하여 脾胃를 鼻에서 살필 수 있으므로 鼻柱가 面部의 中央에 자리하여 높이 융기되어 있으니, 이것이 三焦가 決瀆하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反映한 것이다.⁵⁶⁾”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말씀입니다. 원컨대 六腑의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시기를, 六腑는 胃가 근본이 되는데, 鬚의 근육 넓고 목이 굵으며 가슴이 벌어졌으면 五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코 구멍의 깊이로 大腸을 살필 수 있고, 입술의 두

께와 人中의 길이로 小腸을 살피며, 눈 아래 두덩이 크면 膽이 튼튼하고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나면 膀胱이 약하여 소변이 漏泄되고, 콧대의 中央이 솟아있으면 三焦의 기능이 좋으니, 이것이 六腑를 살피는 방법입니다. 上下의 三停이 균등하면 五臟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骸’에 對하여 景岳은 脛骨로 보아 骨格이 크다는 뜻으로, 李 등은 頰肉으로 보았는데, ‘骸’는 郭은 ‘骸’의 誤字로 보았고⁵⁷⁾ 『明文漢韓大字典』에는 ‘骸’와 같은 글자라고 하였으며⁵⁸⁾, 胃經이 얼굴부터 차례로 목을 지나 胸部로 순행하므로 ‘廣骸’는 頰肉이 豐滿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文意上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較註에 對한 考察】

‘果’에 對하여 景岳·志聰은 目下의 囊裹로 보았는데, ‘果’와 ‘裹’는 같은 글자이므로 下眼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上下三等’에 對하여 丹波 등은 전신과 얼굴의 三停이 相等·平等하다는 뜻으로, 廓은 ‘三’과 ‘參’은 같은 글자이므로 相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身面의 上中下가 서로 잘 어울린다는 相稱의 뜻으로 보는 것이 文意上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IV. 意 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기에 옛 스승들은 마음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으므로 책에 記錄으로 남기지 않

55) ●廓: 橫은 恣橫이라 漢書田蚡傳顏注에 橫은 恣也라하니라 鼻柱中央起는 謂鼻不平塌이라 約은 廣雅釋詁一에 約은 好也라하니라 三은 與參同하니 參에 有相義라 上下相等은 猶陰陽二十五人所謂之上下相稱이라 舊注에 以三停相等으로 爲說하고 引麻衣相法하야 證之나 誤矣라 ○校釋: 下果는 下眼胞라 約은 好的意思라 廣雅釋詁一에 約은 好也라하니라 一說에 作約束解나 姑從前義라

56) ●李: 膀胱漏泄은 指膀胱藏津液의 功能失常하야 而小便淋漓或不禁이라 蓋鼻孔掀露는 乃肺臟虧損하야 而肺主通調水道下輸膀胱 故로 肺病이 可累及膀胱而津液失藏이라 約은 約束이니 此指決瀆水液의 功能이라 上中下三焦之氣가 分別出自胃和小腸하고 三焦水液의 敷布運行은 取決于脾의 轉輸하야 而脾胃候于鼻 故로 鼻柱位居面部中央而高起하니 是三焦決瀆功能正常的反映이라

57) 郭霽春, 黃帝內經詞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5. p.935

58)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p.2018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들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본받아 몸소 실천하여 위로는 백성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몸을 다스려서 백성으로 하여금 病들지 않게 하고 위에 있는 이와 아래에 있는 이가 서로 의종계 지내게 하며 은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도록 아래로 흘러 넘치게 하여 後世의 子孫들로 하여금 병마에 걱정이 없도록 하고 이 道를 後世에 傳授하여서 단절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이 道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岐伯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심오하고 멀리까지 내다보신 질문이십니다. 백성을 다스리거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저것을 다스리거나 이것을 다스리는 것과 작은 것을 다스리거나 큰 것을 다스리는 것과 나라를 다스리거나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 도리에 거슬러서는 제대로 다스릴 수 없으니, 오직 순리대로 해야 할 따름입니다. 순리대로 한다는 것은 다만 陰陽과 十二經脈과 營氣·衛氣의 逆順에 順應하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사람들이 모두 그 마음이 가는 바의 뜻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르게 하고자 해야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순리대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風俗을 물으며,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꺼리거나 피하는 것을 물으며, 祠堂에 올라서는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물으며, 환자를 만나면 그에게 적합한 치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편안한지를 물어 보아야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는 어떤 것들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일반적으로 뱃속에 熱氣가 있어 많이 먹지만 빨리 배가 고프는 消癯病이 있으면 寒法이 적합하고 寒氣가 내부에 있으면 熱法이 適合합니다. 胃에 熱氣가 있으면 飲食物이 쉽게 消化되어 火가 올라와 환자의 마음이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불안해지고

자주 배가 고프며 배꼽 위의 皮膚에 熱感이 있으며, 腸에 熱氣가 있으면 黃色의 죽 같은 大便을 보고 배꼽 아래의 皮膚에 熱感이 있습니다. 胃에 寒氣가 있으면 腹部가 脹滿해지고 腸에 寒氣가 있으면 배에서 소리가 나며 泄瀉하며, 胃에 寒氣가 있고 腸에 熱氣가 있으면 배가 부풀어오르면서 또한 泄瀉를 하고, 胃에 熱氣가 있고 腸에 寒氣가 있으면 배가 빨리 고프고 아랫배가 몹시 아프면서 脹滿하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胃는 본래 찬 것을 마시고자 하고 腸은 뜨거운 것을 마시고자 하여 이렇게 둘이 서로 상반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 치료입니까? 특히 잘먹고 편안히 지내는 王公·大人과 肉食을 즐겨먹는 사람들은 교만하며 방자하여 남을 깔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하고 남의 말을 가벼이 여겨 禁忌를 지키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억지로 지키게 하면 그들의 뜻과 배치되고,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면 病을 더 심하게 만들게 되니,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며 또 먼저 어떠한 방법을 써서 治療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죽는 것을 싫어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니, 어떻게 하면 질병이 악화되며 그 害毒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병세가 호전되며 그 좋은 점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줌으로써 치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하도록 인도해 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차 더 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킨다면 아무리 무지막지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의사의 권고를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治療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봄과 여름에는 먼저 表에 있는 標病을 治療하고 그 뒤에 本病을 治療해야 하며, 가을과 겨울에는 먼저 안에 있는 本病을 治療하고 그 뒤에 標病을 治療해야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이러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음식과 의복이 차고 더운 것을 적합하게 해야 하는데, 의복은 춥게 하지 말아야 할 환자가 춥게 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약간 서늘하게 해주어야지 너무 추워서 떨지 않도록 해야 하고 덥게 해주지 말아야 할 환자가 기어코 덥게 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약간 덥게 해주어야지 너무 더워서 땀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은 너무 뜨겁거나 차갑게 먹지 않아야 하니, 차고 더운 것을 적절하게 하면 元氣가 안팎을 통솔하고 主持하여 不定한 邪氣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本藏篇』에서는 몸의 형태와 四肢 關節과 근육이 모여 있는 것으로서 五臟六腑의 크기를 살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존귀한 王公과 大人이나 朝廷을 맡아 즉위한 君主가 묻는다면 누가 감히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서 아는 짓도 어려운데, 만진 뒤에 대답할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身形과 支節은 臟腑의 덮개이니, 얼굴에서만 살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五臟의 氣를 얼굴에 살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支節을 살펴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五臟六腑에서 肺가 덮개가 되는데, 어개가 크고 넓은 것과 咽喉의 들어가고 나온 것에 근거하여 그 밖에 나타난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좋고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五臟六腑에서 心은 君

주가 되고 缺盆은 그 통로가 되는데, 鎖骨의 크기와 有餘함으로써 劍狀突起를 살필 수 있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좋고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岐伯이 말하기를, 肝은 將軍之官이니 눈으로써 그 外部를 살필 수 있는데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그 堅固함을 알려면 눈의 색깔과 형태와 시각 기능을 보아야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좋고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岐伯이 말하기를, 脾는 衛氣를 주관하여 飲食을 받아들인데, 입술과 혀의 색깔과 형태와 맛의 좋고 나쁨을 보고 吉凶을 알 수 있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좋고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岐伯이 말하기를, 腎은 外部를 주관하여 멀리 들을 수 있는데 귀의 외형과 청력상태의 좋고 나쁨을 보고 腎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신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六腑가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六腑는 胃가 근본이 되어 食物을 받아들여 水穀之海가 되는데, 脘의 근육이 넓고 목이 굵으며 가슴팍이 넓고 크게 벌어지면 五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콧구멍의 깊이를 보고 大腸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입술의 두께와 人中의 길이를 보고 小腸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눈 아래의 눈두덩이가 크면 膽이 堅實합니다.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膀胱이 약하여 소변이 새어나오고, 콧대의 中央이 솟아 있으면 三焦中에서 下焦의 기능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六腑를 살피는 方法입니다. 얼굴 上中下의 三停이 균형 잡혀 있으면 臟이 편안하고 기능이 좋습니다.

V. 結論

「師傳」에 대한各家註를比較·考察하고 譯解한 결과 그 主要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第一章 二節의 '便'에 대하여 楊 等은 相宜·適宜한 것으로 보았고, 張은 更의 뜻으로 보았으나, 환자는 病證에 합당하고 적절한 상황을 편안하게 여기며 또 의사는 이러한 調治를 취하여야하므로 '편안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二節의 '腸中熱則臍以下皮寒'에 대하여 腸中이 熱하면 臍以下가 皮熱해야 하므로 『懸解』와 같이 '皮寒'을 '皮熱'로 고치거나, 錯簡으로 보아 '臍以下皮寒'을 下文의 '腸中寒則腸鳴飧泄' 아래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二節의 '胃欲寒飢'에 대하여 『太素』等에는 모두 '胃欲寒飢'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고쳐야 뒤의 '腸欲熱飲'과 對句가 되고 文意가 確然해지므로 '寒飢'를 '寒飲'으로 고쳐야 한다.

4. 二節의 '王公大人 血食之君 …… 禁之則逆其志 順之則加其病' 등의 내용에서는 치료할 때에 환자의 뜻을 거역하고 放縱하여 病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無道한 사람일지라도 계속 설득하여 治療해야하는 醫師의 자세와 임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5. 三節에서는 春夏에는 先治其標하고 後治其本하며 秋冬에는 先治其本하고 後治其標한다고 하여, 聖인이 春夏에 養陽하고 秋冬에 養陰한다는 養生法과 그에 따른 治療法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飲食과 衣服의 寒溫이 적당하면 正氣가 유지되어 邪氣가 쉽게 침입하지 못한다는 질병 예방법을 제시하였다.

6. 三節의 '寒無悽愴' 句節 앞에 『懸解』와 같이 '衣服者'를 삽입하여 '衣服者 寒無悽愴'으로 고치면 後文과 對句가 되어 의미가 確然해

진다.

7. 第二章 第一節의 '髑骨'는 髑肝가 胸骨의 劍上突起이므로 心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鎖骨內側端으로 보는 것이 옳다.

8. 第一節의 '視目大小'에 대하여 눈의 明暗機能뿐만 아니라 색과 형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9. 第一節의 '脣舌好惡'에 대하여 脣舌의 外形과 색 및 口味의 상태까지 종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0. 第二節의 '骸'에 대하여 '骸'는 '骸'와 같은 글자로 頰肉을 뜻하며, 胃經이 얼굴부터 목을 따라 胸部로 순행하므로, '廣骸'는 頰肉이 豐滿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第二節의 '果'에 대하여 景岳·志聰은 目下의 囊裹로 보았는데, '果'와 '裹'는 같은 글자이므로 下眼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12. 第二節의 '上下三等'은 身體와 顔面의 上中下가 서로 조화되어 잘 어울린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VI. 參考文獻

1.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一 中社 서울 1992
2. 丹波元簡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3. 樓英 醫學綱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
4.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4
5.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7.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8. 王冰撰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10.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90
11.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1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3. 張介賓 類經正字本 大星文化社 서울 1982
14. 陳璧琉·鄭卓人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15. 陣夢雷等編 醫部全錄 醫經註釋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16.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7. 皇甫謐著 山東中醫學院校釋 鍼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18. 黃元御 靈樞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VII. 參考辭典

1.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2.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3. 李熙昇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0
4. 鄭鳳欽 漢英英漢中醫大辭典 天津大學出版社 天津 1994
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文大辭典出版部 臺北 1986
6. 漢英醫學大詞典編纂委員會 漢英醫藥大詞典 商務印書館 香港 1988
7. 郭靄春 黃帝內經詞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5